

2004. 5. 12(水)

第24回 韓經研 포럼

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

- 주 제 : 총선이후 한국경제 전망 및 과제
- 연 사 : 허찬국 소장(본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)

총선 이후 한국경제 전망 및 과제

허찬국 선임연구위원

< 목 차 >

I . 국내경제동향

II .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

1. 주요국 경제
2. 국제환율
3. 국제유가

III . 2004년 경제전망과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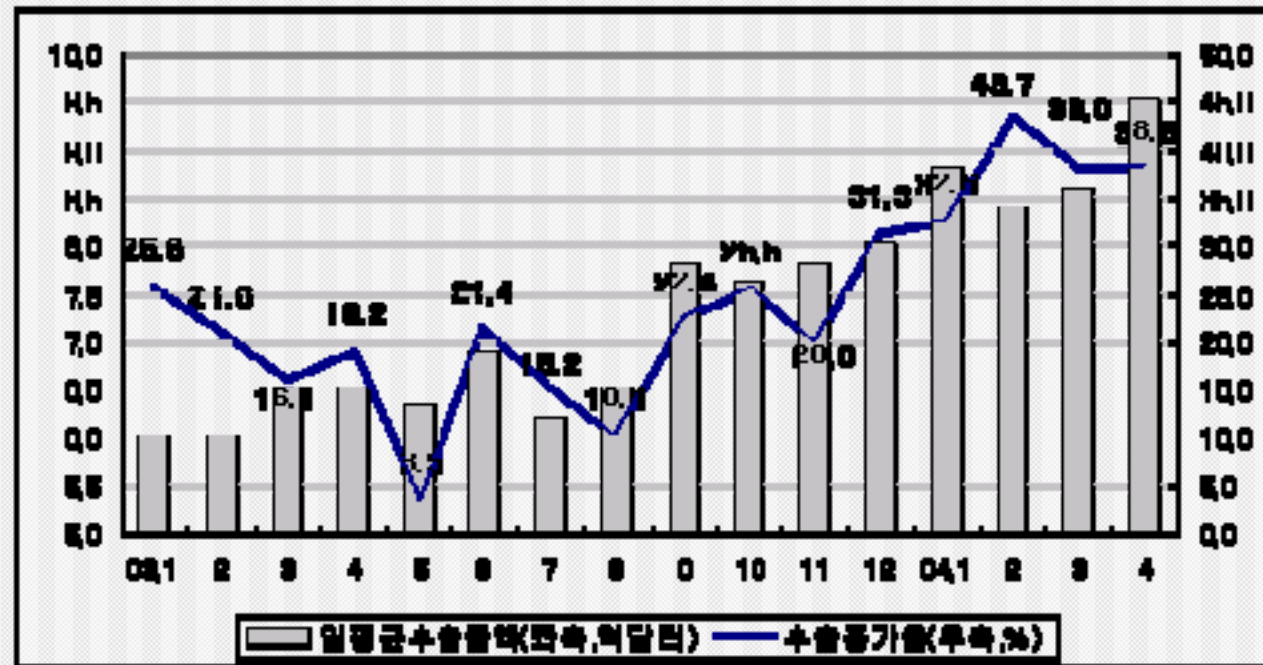
1. 2004년 경제전망
2. 단기 위험요인
3. 중장기과제

I. 국내경제동향

❖ 수출신장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종합적인 실물경기 회복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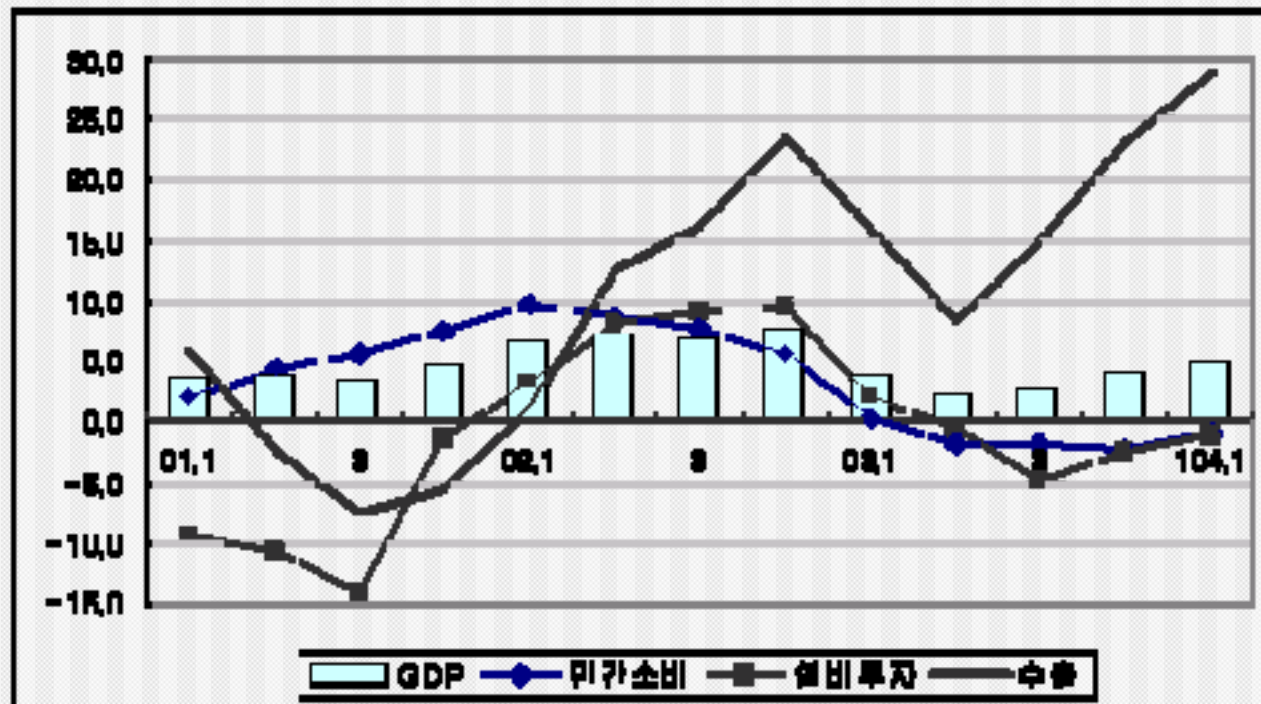
수출신장세 급등

- ✓ 올 1~4월중 수출증가율 38.0%(전년동기비)
- ✓ 일평균 수출금액: 지난해 9월 이후 8억달러대, 올 4월에는 9억달러로 급등



실질 GDP 증가율, 지난해 2/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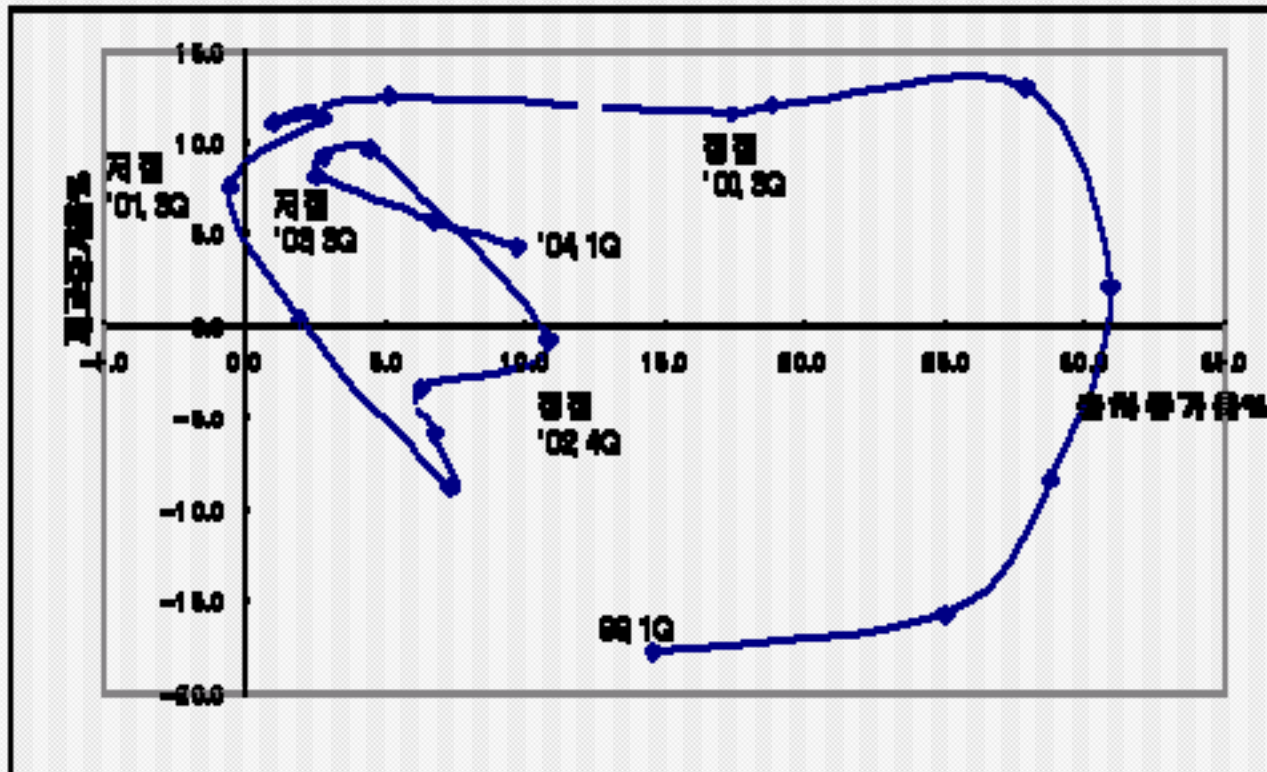
- ✓ 민간소비,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은 '0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
- ✓ 총수출(물량기준)이 지난해 2/4분기 8.4% → 4/4분기 24.0%로 급등한데 기인



주: 2004년 1/4분기는 환경연 추정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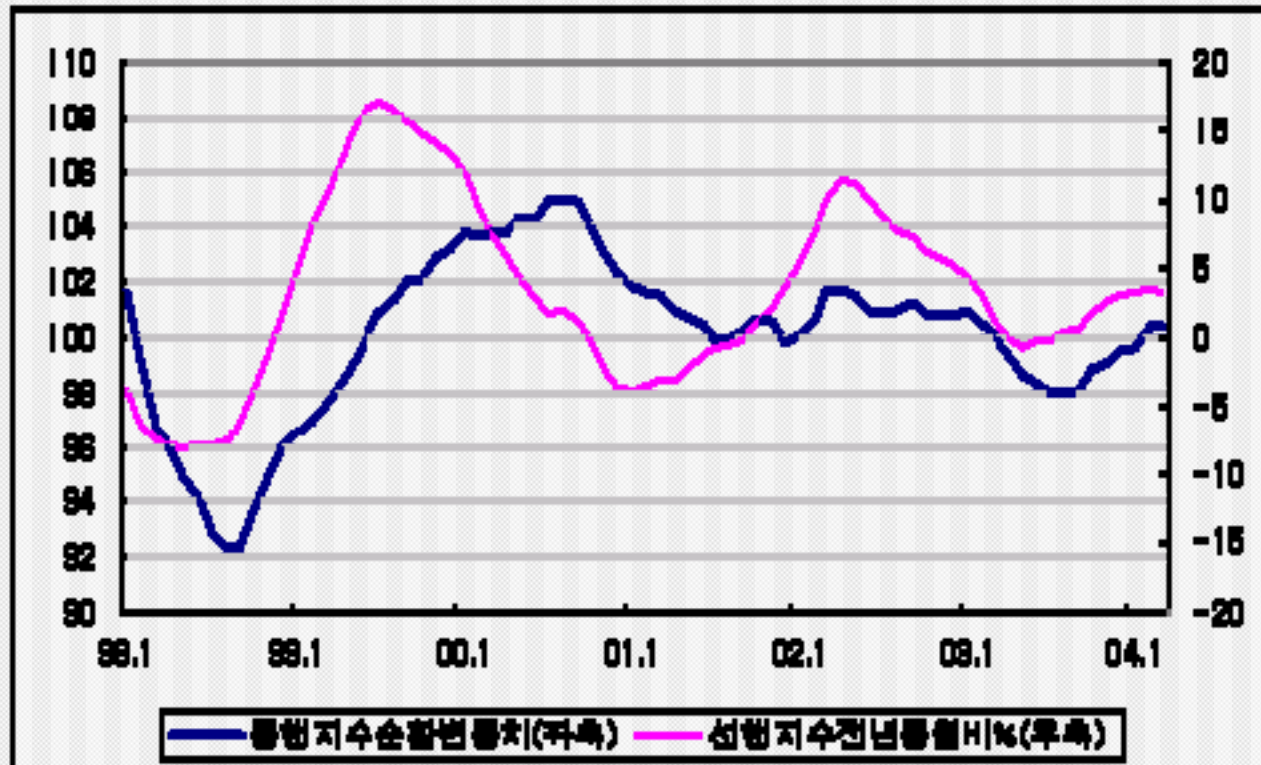
출하-재고 순환도상 회복국면

- ✓ '03 3Q 이후 출하증가율은 높아지고, 재고증가율은 둔화



경기종합지수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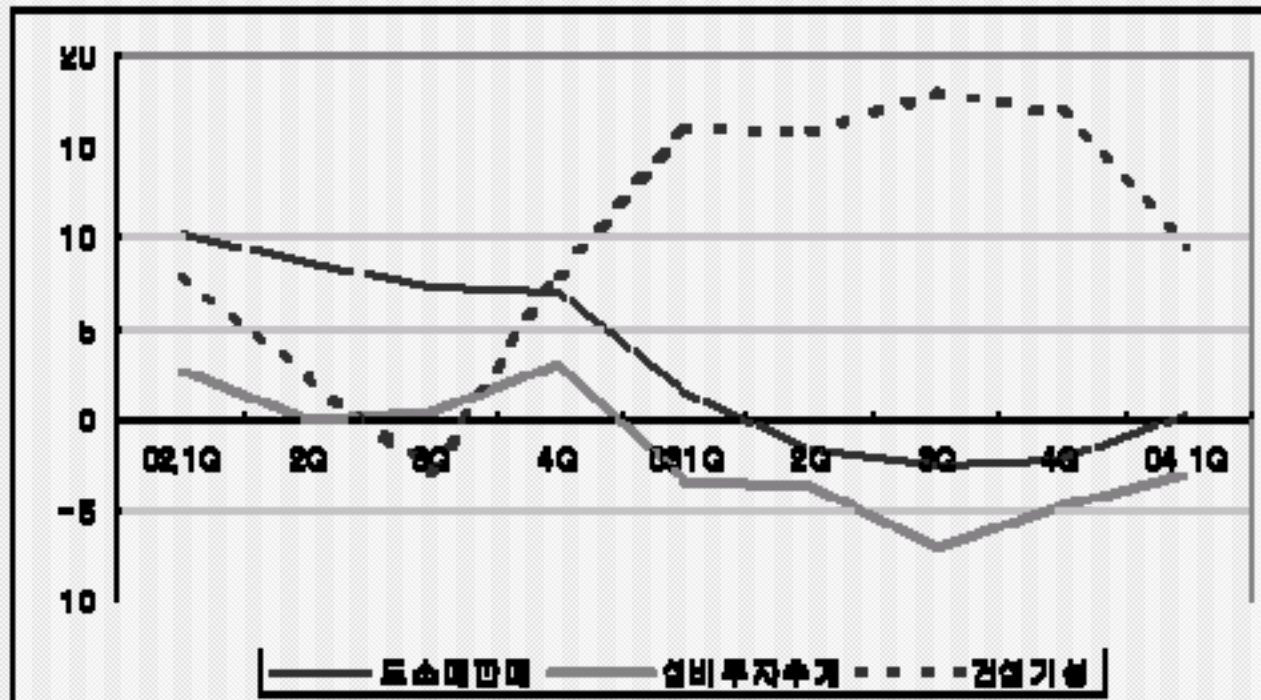
- ✓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올 2~3월 연속 100 상회
- ✓ 향후의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전년동월비도 8개월 연속 플러스



❖ 그러나 부문간 양극화는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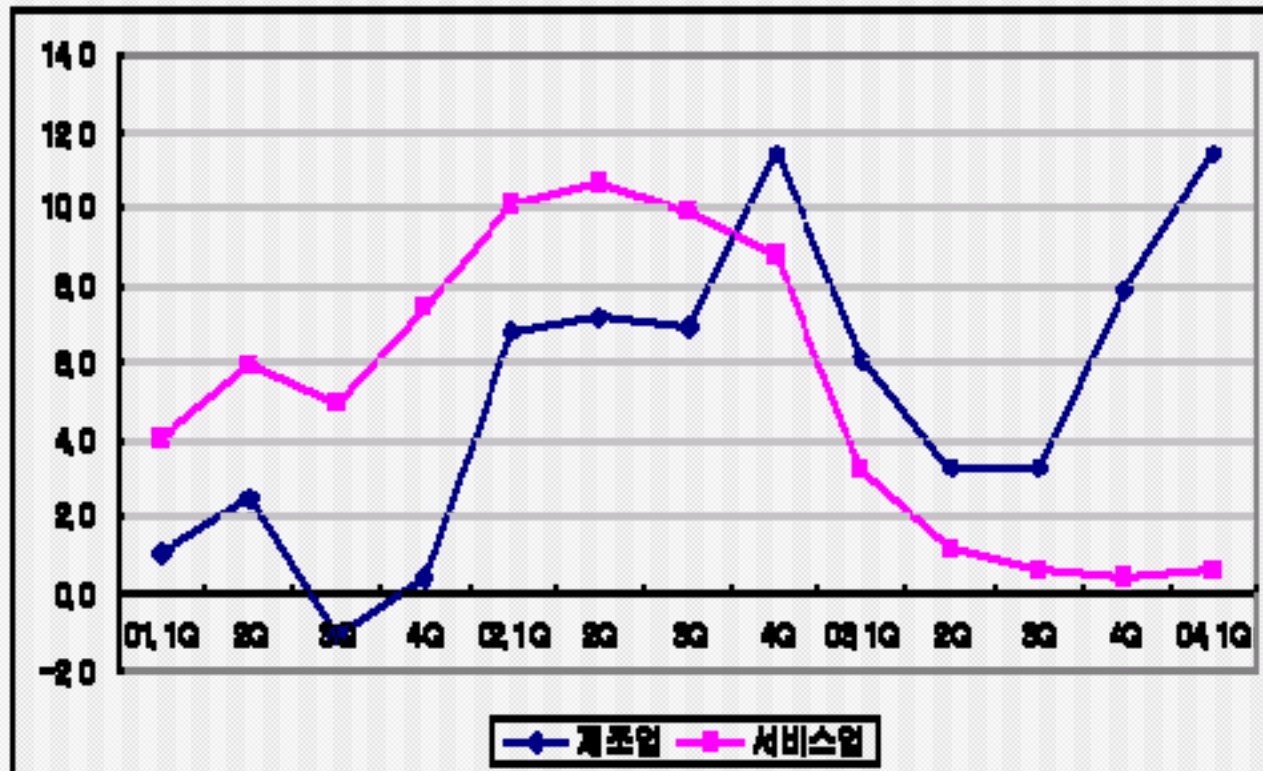
내수부문 부진 지속

- ✓ 도소매판매가 1/4분기중 +증가율(0.2%)을 보였으나 소매업 (-1.6%)은 부진 지속
- ✓ 설비투자 부진 지속
- ✓ 건설투자 증가세 큰 폭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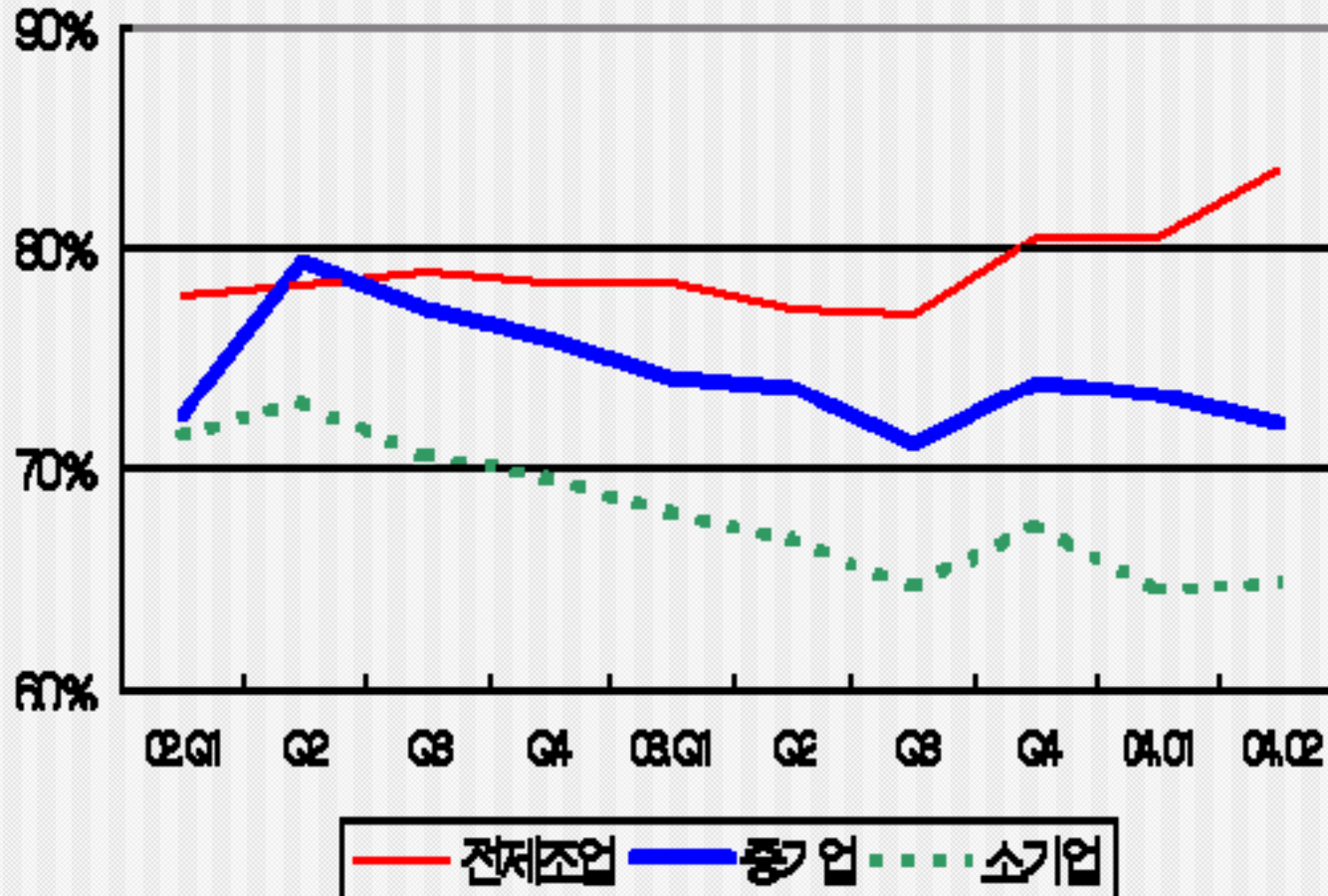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, 여전히 부진

- ✓ 수출편중형 경기회복세로 제조업생산은 빠른 회복세를 보임
- ✓ 그러나, 내수업종인 서비스부문은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



중소규모 사업장 가동률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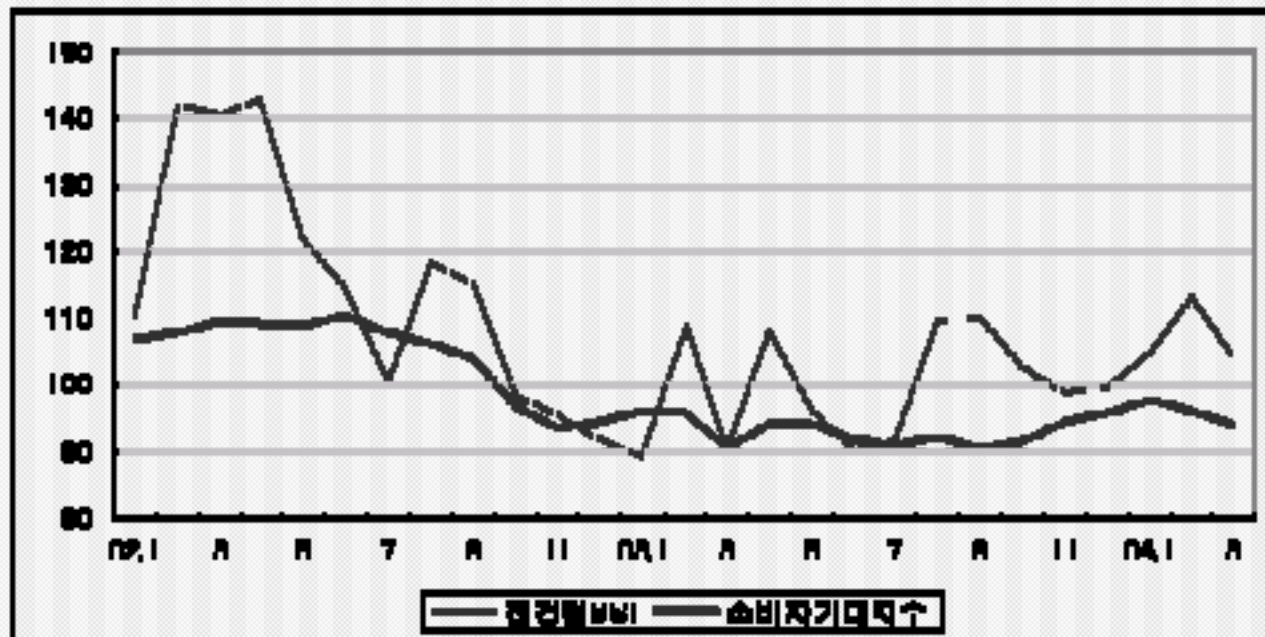
- ✓ 전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80%를 상회하고 있으나
- ✓ 규모에 따른 가동률 격차는 확대



❖ 이에 따라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

미흡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는 경제심리지수

- ✓ 전경련BSI는 기준치인 100을 전후로 등락 지속
- ✓ 소비자기대지수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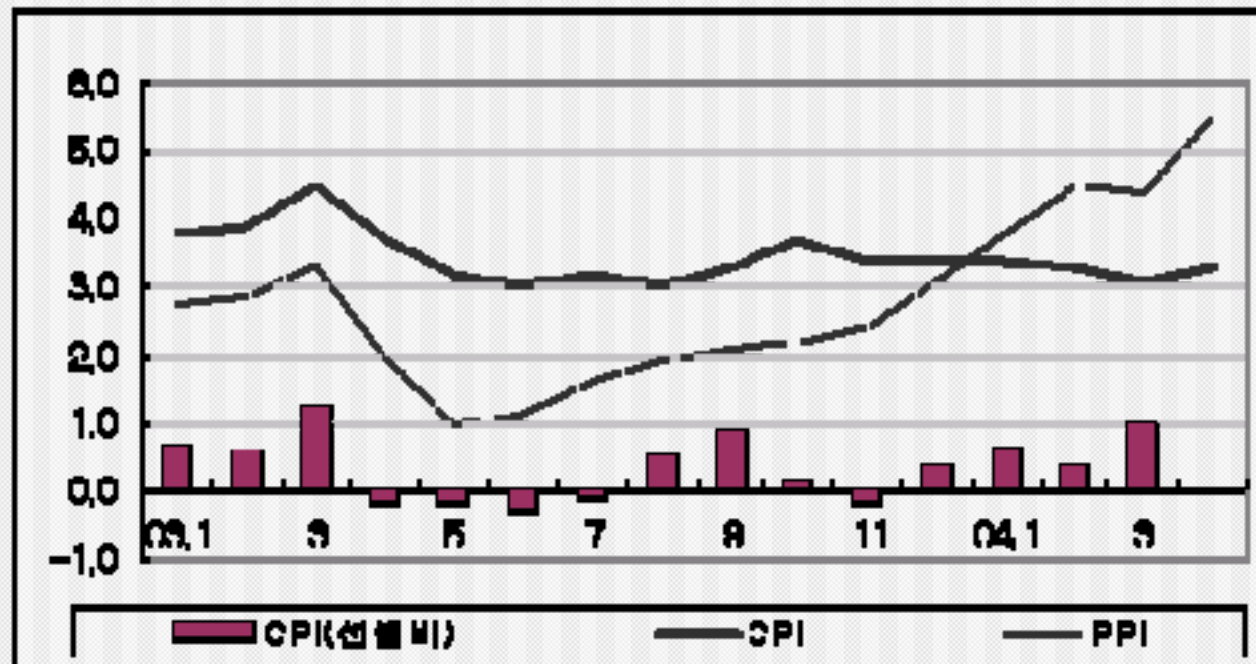


주: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
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

❖ 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

물가 오름세 확대

- ✓ 생산자물가: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
- ✓ 소비자물가: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나 전월비 증가율은 연속 상승(올 1~4월 중 2.1% 상승)
- ✓ 생산자물가의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전망



❖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

- ✓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년 1~3월 중 62억달러 흑자

경상수지 추이

단위: 억달러

	2003년		2004년			
	1~3월	연간	1월	2월	3월	1~3월
경상수지	-15.2	123.2	23.4	28.9	9.7	62.0
상품수지	12.4	221.6	29.8	30.0	26.9	86.6
서비스수지	-23.0	-76.1	-7.7	-4.6	-6.5	-18.8
소득수지	2.5	6.0	3.5	5.9	-7.2	2.3
경상이전수지	-7.2	-28.2	-2.2	-2.4	-3.4	-8.0

II.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

1. 주요국 경제

❖ 미국경제 : 뚜렷한 회복세 지속

- ✓ 지난해 3/4분기 GDP성장률이 8.2%(전기대비연율)을 기록한 미국경제가 4/4분기(4.1%)와 올 1/4분기(4.2%)에도 잠재성장률 수준(3.0~3.5%)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

❖ 중국경제 :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 가중

- ✓ 고정투자(43.0%) 및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 1/4분기 중 GDP성장률이 9.7%를 기록
- ✓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3%대로 상승

❖ 일본경제 : 회복세 지속

- ✓ 수출증가세가 1/4 분기 중 10%대로 급신장하면서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

❖ 유로지역경제 : 회복세 미약

- ✓ 생산과 소비 등 주요경제지표가 서로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세 미약

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

		'02년	'03년	'04년				
				1/4	1월	2월	3월	연간전망
미 국	GDP(전기대비연율%)	2.2	3.1	4.2				4.6(+0.7)
	산업생산(전기대비%)	-0.6	0.3		0.7	0.8	-0.2	
	소매판매(전기대비%)	2.5	5.4		0.5	1.0	1.8	
	실업률(%)	5.8	6.0		5.6	5.6	5.7	
중 국	GDP(전기대비연율%)	8.0	9.1	9.7				8.5(+1.0)
	수출(FOB,전년동기비%)	22.1	34.7		19.8	39.5	42.9	
	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%)	-0.8	1.2		3.2	2.1	3.0	
일 국	GDP(전기대비연율%)	2.5	6.4					3.4(+1.9)
	광공업생산(전년동기비%)	0.8	2.9		5.3	6.7	7.7	
	수출(FOB,전년동기비%)	7.1	4.0	11.6	11.3	10.3	13.2	
인 도	GDP(전기대비연율%)	0.9	0.4					1.7(-0.1)
	산업생산(전기대비%)	-0.5	0.3		-0.3	0.1		
	소매판매(전기대비%)	0.0	0.2		2.3	-0.8		
	수출(FOB,전년동기비%)	2.0	-2.7		-2.8	1.6		

주: 연간전망치는 IMF 4월 발표자료임. ()내 수치는 지난 해 9월전망치와의 차이

2. 국제환율

❖ 최근 미달러화,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

- ✓ 미국 고용사정 개선으로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짐
- ✓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금리인하 기대로 유로지역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가능성 등으로 강세
- ✓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입 확대, 일본에 대한 테러위험 고조 등으로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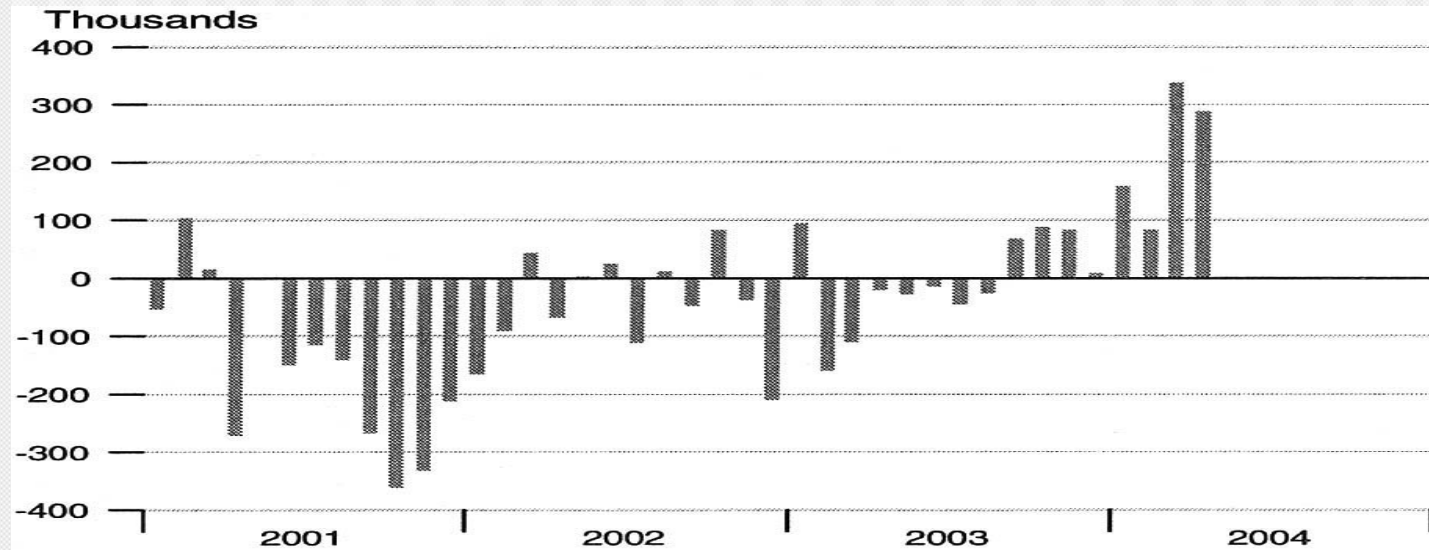
❖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단기간에는 달러강세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약세로 돌아설 전망

- ✓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과 미·일·유로간 회복세 차이로 당분간 달러강세가 지속될 가능성
- ✓ 그러나 미국의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적인 달러약세의 근본원인으로 작용

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

	'01 말	'02 말	2003년			2004년 말				
			10월말	11월말	12월말	1월말	2월말	3월말	4월말	5/10
달러 /유로	0.88	1.05	1.16	1.20	1.26	1.25	1.25	1.23	1.20	1.18
엔/달러	131.38	118.52	108.95	109.32	106.95	105.58	109.50	103.88	107.82	113.42

미국 취업자수 증감추이(월, 비농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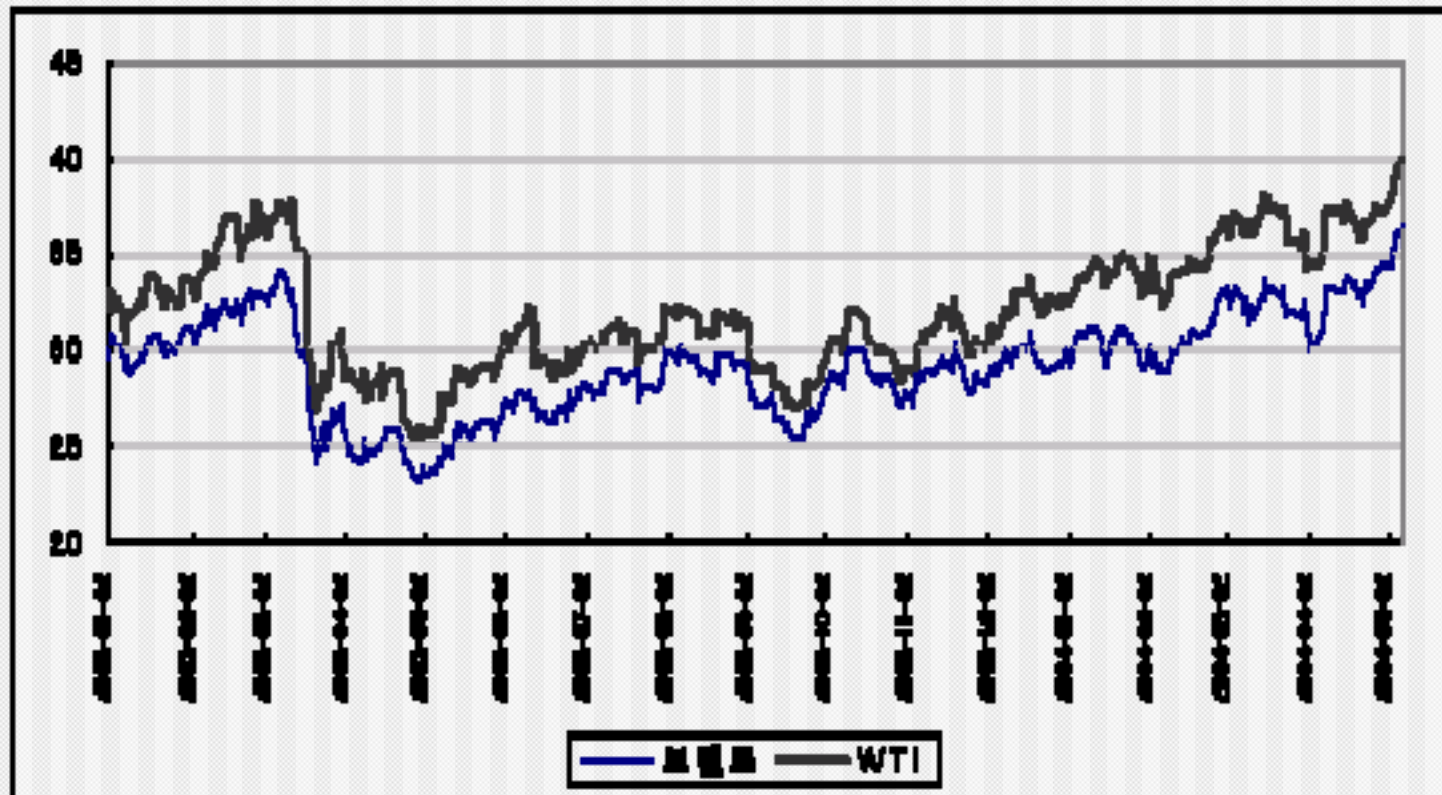


3. 국제유가

❖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해 이라크전 직전보다 더 높은 수준

- ✓ 4월까지의 미국의 원유재고 부족,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세계경제 회복세로 석유수요 증가, OPEC의 감산결정 이행 확인(3월 31일) 등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가 고유가의 주요한 원인
- ✓ 최근에는 수급요인보다는 중동지역 긴장고조 및 테러위험 확산 등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

- ❖ 따라서 수급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중동정국의 변동성이 조만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고유가 지속가능성



III. 2004년 경제전망과 위험요인

1. 2004년 경제전망

- ❖ 실질GDP, 수출호조와 내수의 기술적 반등으로 5% 증가
 - ✓ 수출은 대중국 수출호조 지속과 더불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증가로 큰 폭의 증가세(통관기준 22.0%) 전망

✓ 다만,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은 지난 해 하반기 부진했던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빠른 증가세가 예상됨.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(민간소비 1.8%, 고정투자 3.0%)

-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은 가계부채급증에 따른 부담과 고용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득불안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추세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설비투자의 경우도 가동률이 높은 수출 대기업에 한정되어 제한적인 증가세에 그칠 가능성

- ✓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최종수요항목별 기여도로 보면 다음과 같음
 - 2002년 전체 성장이 내수항목들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2003년의 3.1% 성장은 순수출 증가(2.8%)에 의해 대부분 설명됨
 - 올 해의 예상되는 5%의 성장에는 순수출(2.5%)과 내수증가(2.5%)가 비슷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총수요 주요항목의 GDP성장 기여도(%p)

년도	민간소비	투자		수출	수입	순수출	GDP
		설비	건설				
2002	4.3	0.8	0.9	5.1	-5.3	-0.2	7.0
2003	-0.8	-0.2	1.3	6.4	-3.6	2.8	3.1
2004 ¹⁾	1.0	0.5	0.3	8.3	-5.7	2.5	5.0

주: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

❖ 소비자물가, 수입물가 상승의 여파로 물가불안

- ✓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와 각종 원자재가격은 그 동안 높게 유지되었던 원화 환율에 의해 증폭되어 국내 물가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해왔음
- ✓최근에 이런 고유가 및 환율 급등 추세가 재연되면서 물가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됨

❖ 경상수지, 수출호조로 약 140억달러 흑자

- ✓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 규모(123억달러)를 상회하는 약 140억달러에 이를 전망
 - 원유가 상승,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미국 등의 본격적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상품수지(260억달러)가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는데 기인

❖ 장기금리, 향후 경기회복기대로 완만한 상승

- ✓ 세계경제의 호전전망 등 대외경제여건 개선과 함께 수출호조에 힘입은 향후 국내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장기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
 - 장기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에 5.7%, 하반기에 5.9%로 점차 높아져 연평균 5.8%를 나타낼 전망

❖ 원/달러환율, 단기 상승(절하) 장기 하락(절상)

- ✓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, 정책금리 조기 인상 등에 따라 최근의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나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는 달러화 약세로 작용
 - 최근의 환율불안으로 원/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락(원화가치의 상승)할 전망
 - 중국 위안화 절상조치는 원/달러 환율의 절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2004년 국내경제전망

단위: 전년동기비%

	2002년	2003년					2004년				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
국내총생산	7.0	3.7	2.2	2.4	3.9	3.1	4.8	5.0	5.1	4.9	5.0
계절조정(전기비%)	6.9	-0.3	-0.1	1.6	2.7	3.1	0.4	0.1	1.7	2.6	5.0
민간소비	7.9	0.3	-1.8	-1.9	-2.2	-1.4	-0.9	1.6	2.9	3.5	1.8
고정자본형성	6.6	4.6	3.7	2.6	3.6	3.6	0.8	2.1	4.5	4.0	3.0
설비투자	7.5	1.9	-0.6	-5.0	-2.4	-1.5	-1.2	2.5	9.9	9.1	5.0
건설투자	5.3	8.0	7.3	7.9	7.4	7.6	2.5	1.7	1.2	0.9	1.5
생산자 물가	-0.3	3.0	1.3	1.9	2.6	2.2	4.2	4.8	4.9	4.0	4.5
소비자 물가	2.8	4.1	3.4	3.2	3.5	3.5	3.3	3.4	3.7	3.5	3.5
경상수지(억달러)	53.9	-15.2	24.3	37.6	76.6	123.2	62.0	25.4	24.9	20.6	138.1
상품수지(억달러)	147.8	12.4	57.6	68.2	83.4	221.6	86.6	64.3	56.2	47.5	254.7
수출(억달러)	1634.1	445.4	465.2	490.5	575.3	1976.4	604.1	581.3	585.9	627.2	2398.5
증가율(%)	7.9	23.0	13.9	19.2	27.2	20.9	35.6	25.0	19.4	9.0	21.4
수입(억달러)	1486.4	432.9	407.7	422.3	491.8	1754.8	517.5	517.0	529.6	579.7	2143.8
증가율(%)	7.7	31.4	12.1	10.8	19.4	18.1	19.5	26.8	25.4	17.9	22.2
서비스, 소득, 이전 (억달러)	-93.8	-27.7	-33.3	-30.6	-6.8	-98.4	-24.6	-39.0	-31.3	-26.9	-116.6
회사채수익률(연%, 평균)	6.5	5.4	5.3	5.6	5.4	5.4	5.6	5.7	5.8	6.0	5.8
실업률(%)	3.1	3.6	3.3	3.3	3.4	3.4	3.8	3.7	3.6	3.5	3.6
세계교역량(%)	2.1					4.5					7.5

2. 단기 위험요인

❖ 해외 요인

중국경제의 경착륙

- ✓ 중국 경기가 과열되었으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중국총리 공언
 - 배경 : 투자와 수출급증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 가중
 - 연착륙을 위해서는 투자, 수입, 수출의 균형 있는 감속이 이루어져야 함
- ✓ 우리경제의 중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수출증가세 둔화는 불가피
 - 2003년 대중수출은 351억달러로 전체수출의 18.1%를 차지
 - 2004년 수출의 기여도(8.3)가 작년의 6.4 보다도 훨씬 높은 것은 우리경제 전망에 수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

- ✓ 올 하반기 우리 대중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10%p 낮아지면
올 성장률이 약 0.4~0.6%p 낮아질 것으로 예상
 - 대중수출 10%p 하락으로 전체수출증가율은 1.9% 하락, 무역수지는 약 37억달러 악화, 성장률은 약 0.6%p 하락
 - 대중수입감소효과를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약 19억달러 악화, 성장률은 약 0.3%p 하락

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환율 절상 및 환율의 통상문제화

- ✓ 위안화의 저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 당국도 환율제도변경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. 특히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절상조치가 조기에 취해질 수 있음
- ✓ 위안화 절상은 여타 아시아 통화의 절상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라 원/달러 환율의 추가절상도 불가피할 전망
- ✓ 아울러 환율이 한미간 통상문제화되면 미국경기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는 대미수출에 악재가 될 우려

- ✓ 하반기 원화환율 예측치를 기본전망 대비 5% 절상(엔화환율은 3% 절상)시켰을 경우, GDP는 연간 0.2% 하락, 소비자물가는 0.2%p 하락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순수출의 감소로 약 21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됨

원화환율 5% 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

	2004 3/4	2004 4/4	2004년 연간
GDP(%p)	-0.30	-0.45	-0.20
소비자물가(%p)	-0.27	-0.46	-0.18
경상수지(억달러)	-8.9	-12.2	-21.1

고유가 상황 지속

- ✓ 본원의 전망은 원유가가 점차 하락해 연말에 배럴당 30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(연평균 32달러)
- ✓ 만약 지금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어 연평균 유가가 기본전망 대비 5달러가 상승하면 성장률은 약 0.3%p 하락할 전망
 -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 오르면 경상수지가 약 30달러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은 0.3%p 하락
- ✓ 고유가 지속은 실물경제 악화와 더불어 물가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

❖ 국내 요인 : 단기간내 비정규직 처우개선

- ✓ 총선결과에의 여파로 분배개선을 도모하려는 기류가 정치권 형성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
- ✓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30%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이슈가 노동계시각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노동시장 여건은 더 경직될 것이며 고용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
 -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계획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계획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국내고용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

✓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% 수준으로 올리려면 매년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약 20.6조원(금융연구원 추정) 정도가 되며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

- 먼저 추가비용만큼의 기업투자위축(-20.6조원)이 발생하나
-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(20.6조원 x 한계소비성향(='95~'03년 평균 약 80.5%) = 16.6조원)가 발생하여,
- 명목GDP는 약 4조원(명목GDP의 0.6%)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

3. 중장기 과제

❖ 신기술 개발 일변도 성장 모형의 한계

- ✓ 정부는 10대 선도기술분야 지정 등 세부적 산업정책의 추진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음
- ✓ 그러나, 기술력만으로 성장달성에 한계가 있음. 그 대표적인 예가 소련과 미국임
 - 소련의 기술력은 최첨단 기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우주항공산업분야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았지만 소련경제는 몰락했고 미국경제는 번성
- ✓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산업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의 범위를 넘어 어떤 경제체제가 작동하는가가 중요
 - 즉, 누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

❖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혼란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가?

- ✓ 사유재산권의 인정 vs. 평등분배
 - 명실상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평등분배와의 조화
 - 늘어나는 공적복지제공 부담의 배분
- ✓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기업 역할 인정과 사회통합
 - 고용과 해고를 포함한 경영자 권한 인정
 - 기업의 가치창출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기업적인 정서 해소
 - 기업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(Noblesse oblige)를 통한 사회통합노력
- ✓ 취업상황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 여부
 -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
 - 임금근로자 비중 확대 등 고용구조의 개선
 - 중장년 및 여성인력 활성화 여부